

격려말씀

연말을 맞아 각계에서 이웃들을 살피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대북지원물품을 전달하려는 북녘동포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마련한 지원물품이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쌀과 감기약 등은 겨울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보내는 쌀은 화엄사와 지역농민들이 직접 경작한 ‘통일쌀’이라고 하니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과 같은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과 교류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때마침 우리정부에서도 북에 신종플루 치료약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지원하는 쌀과 의약품이 북녘의 동포들에게 잘 전달되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2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